

■ 5·24조치 이후 1년 대북지원사업 고사위기

# 민간·종교계 '개점휴업'... 재개 아우성

남북교역과 대북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5·24조치 이후 1년간 민간 단체와 종교계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그동안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상당수의 지원계획이 성과도 내기 전에 줄줄이 무산되면서 대북지원단체도 인도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제3국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강행하고 대북지원단체도 인도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24조치에 얼어붙은 민간 대북지원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총액은 21억원으로 2009년의 77억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작년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지역의 수해구호를 위한 '반짝' 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민간의 대

## 취약계층 허용 불구 밀가루·쌀 통로 막혀 NCKK 등 '우회 지원' 강행으로 정부 압박

북 취약계층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좁았던 지원통로가 더 좁아지는 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이 다시 허용되기는 했지만 밀가루와 쌀 등 식량지원은 여전히 막혀 있고 물품지원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도 극히 제한적이라면 허가되는 실정이다.

50여 개 회원단체가 소속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취약계층 지원 재개 이후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중화해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하지 않았다.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56개이던 회원단체가 51개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단체 중에서도 절

반 정도는 대북지원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북한 이외의 지역을 돕는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을 '생색내기'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지원·5·24해제 촉구=단체들 '행동개시' = 정부 제한으로 대북지원 통로가 막히자 지원단체들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지원'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한 지원 확대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NCKK는 18일 중국의 구호단체인 애민기금회(Amyty Foundation)를 통해 평양으로 밀가루 172t을 보냈다. 정부의 불허로 국내의 대북지원 경로가 막히면서 꺼내 든 '교육지책'으로, 다른 단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게 돕겠다는 게 NCKK의 계획이

다. NCKK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므로 중국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정부의 엄격한 지원물품 반출 제한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등지에 보내려고 쌀 200t과 밀가루 200t, 풍우유 재료에 대해 통일부에 반출신청을 해둔 상태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나 공개집회 등을 통해 사유를 밝히려고 요구할 계획이다.

민중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지원단체들은 23일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을 정부가 막아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다.

야 4당과 7대총단,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도 공동으로 24일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할머니 힘내세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온 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온 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DJ 복지철학 재평가 해야”

### 남찬섭 동아대 교수 '5·18학술대회'서 주장

최근 정권에서 논란이 거센 복지정책의 철학을 정립하고 실천의 초석을 놓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J철학'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승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교수는 오는 20일 전남대 5·18연구소가 개최할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발표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생산적 복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5·18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을 주제로 열린다. 남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과거 무

조건 나눠주는 복지에서 일하면서 도움을 받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개발을 주도한 최초의 정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법적 토대를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를 복지를 통해 심화시키려는 것으로,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최초로 분배와 성장 간의 실질적 균형을 맞추려한 미래지향적인 복지이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 정신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개혁 경험이 없었다면 현재 대안사회 논쟁의 성격은 먼 복지국가 논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두 정부가 시도한 다양한 노력과 문제 제기는 현재까지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항쟁 31주년 기념학술대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민주주의와 김대중' '5·18과 김대중' '한국사회와 김대중의 유산' 등 4개 부문에서 논문과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국가경쟁력 22위...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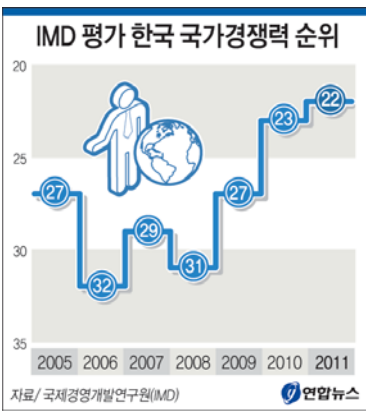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2위를 차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한번 더 경신했다.

IMD가 17일 공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 59개 국가 및 지역 경제 가운데 2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27위에서 2010년 23위로 4계단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계단 추가 상승한 것이다.

미국과 홍콩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를 3위로 내려앉았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대만, 캐나다, 카타르, 호주, 독일 등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2009년 17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0계단 하락했다가 올해 1계단 상



승한 26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네수엘라였다.

IMD가 1989년부터 발표해 온 '세계경쟁력연감'은 해당 국가·지역 경제의 공식 통계(3분의 2)와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3분의 1)를 분석, 국가 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연합뉴스

## “北 사이버 병력 3만명 육성”

### “능력은 CIA 필적” 美 폭스뉴스 보도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중앙정보국)에 필적한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김정일이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수년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웹사이트를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방문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적되는 컴퓨터들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폭스뉴스는 탈북자들을 인용, 북한이 3만명에 이르는 전자전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

다.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대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비밀 학교에 보낸다고 전했다. 이들 학교 중 한 곳은 워낙 보안이 심해서 외부인 가운데는 김정일만이 그 학교를 방문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들 비밀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북한의 전자전사령부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자동화대학이 핵심이라면서 이 곳에서 1년에 100~110명 가량의 해커들이 배출된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전) 능력은 CIA와 필적한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현재 북한이 미 태평양군사령부를 마비시키고, 미국 내 국방관련 네트워크들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盧 전 대통령 추모분향소 금남로 공원에 설치키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위원회’와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광주전남추모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금남로 공원에 노 전 대통령 추모분향소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추모기간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사진전도 열고, 분향소 주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서명캠페인도 개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5·18 맞아 남북관계 개선 촉구

### 北 노동신문·민주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18일 남북관계 경색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설을 실고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쇼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항쟁”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당국의 반민족적

대결정책을 철회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광주인민봉기는 의제와 친미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끝내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며 반미투쟁을 호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실었다. /연합뉴스



###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